

트럼프 2차 관세폭탄 50% 예고...광주 산업계 초비상

“한국과 일본 낮은 관세 적용받을 일 없을 것”...최대 50% 시사
미국 수출 비율 50% 기아차·車 부품 협력업체 등 직격탄 우려
광주지역 경기전망지수 악화...정부·지자체 공동 대응 전략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상호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비율 중 미국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3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받는 국가는 25%, 35%, 50%, 아니면 10%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며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미국 관세 폭탄은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타깃 품목으로 거론되며 지역 수출의 중추 역할을인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완성차 생산 거점인 기아차 공장이 있는 광주지역 경제계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기준 기아 오토랜드 광주 수출량의 50% 이상이 미국 수출인 데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 등 협력 업체도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발표한 ‘2025년 광주지역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이전 분기(92)보다 5p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 전자제품·통신(95), 자동차·부품(78), 기계·장비(85), 철강·금속(83), 화학·고무·플라스틱(45), 식음료(91) 등 대부분 업종에서 체감경기 악화가 전망됐다.

특히 자동차·부품(79→78)의 전망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정책의 변동성 확대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광주상의는 설명했다. 수출 기업(97→89)의 전망 하락 역시 불투명한 세계 경제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광주의 경우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아 미국발 무역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강화’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 생산 물량 조정과 수출 중단 등 생산 자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전

반에 걸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한미 제조업 협력, 현지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식 강경 무역 기조 앞에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감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내수 진작, 원가 부담 완화, 수출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록스’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록스’ 팝업매장에서 직원들이 크록스 신발과 크록스 모양의 빵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월 3일까지 지하 1층 델리행사장에서 ‘크록스’ 이색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에서는 크록스 신발과 크록스 샌들 모양의 빵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샌들제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더불어 크록스 신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크록스 빵 1세트를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새 정부 기대감에...지난달 광주·전남 경기 회복 기미

산업활동동향...생산 지표 상승
소비 하락폭 절반 가까이 좁혀

광주·전남지역 경기지표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측면에서는 1년전보다 출하와 재고 등 지표가 상승했고, 소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 하락폭을 좁히면서 지역경기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시 광공업생산지수는 136.0으로 전년 동월(124.6) 대비 9.1% 증가했다. 출하가 5.8%, 재고는 1.3%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26.5%), 금속가공(-28.9%), 기계장비(-5.6%) 등이 하락했지만, 전기장비(45.3%), 담배(67.6%), 전자·통신(38.8%) 등이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가 101.0으로 전년 동월(105.3)보다 4.1%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2월(-17.1%), 3월(-8.0%), 4월(-8.8%)까지 지역민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컸지만, 1달 새 절반 가까이 감소폭을 좁혔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백화점은 1년전보다 0.1% 상승 전환했지만, 대형마트는 9.7% 감소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생산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등 광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남지역 5월 중 광공업생산지수는 109.1로 1년전(108.3)보다 0.7% 상승했다. 출하가 3.6% 증가했고, 재고는 4.5% 감소했다.

전남은 1차금속(9.2%), 전기·가스업(8.0%), 기계장비(12.2%) 등이 증가했고, 화학제품(-3.0%), 전기장비(-50.7%), 비금속광물(-12.0%) 등은 감소했다.

전남 5월 중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8.1% 감소한 86.0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 오락·취미·경기용품(14.9%)가 급증했지만, 식음료품(-3.6%), 의복(-25.3%), 가전(-23.3%) 등이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내수부진에...6월 광주·전남 기업경기 악화

제조업 CBI 81.6, 12.2P 하락

광주·전남지역 6월 중 기업 경기가 또다시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 모두 기업심리지수(CBI)가 하락했는데, 지역 기업들은 경영애로사항의 주된 요인으로 ‘내수부진’을 꼽았다.

지난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 제조업 CBI는 81.6으로

전월 대비 12.2포인트(p) 하락했다.

구성지수별 기여도는 제품재고(-4.1p), 업황(-2.7p), 신규수주(-2.5p), 자금사정(-1.6p), 생산(-1.3p) 등 모든 지표가 기업심리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비제조업 CBI도 1달 전보다 6.7p 하락한 86.6에 그쳤다. 비제조업에서는 자금사정(-2.7p)과 업황(-1.7p) 등의 기여도가 떨어진 점이 전반적인 하락을 견인했다.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심리지수 및 업황 등이

악화된 주요 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꼽혔다.

지역 소재 제조업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상황(22.3%), 기타·없음(21.6%), 경쟁심화(10.1%), 수출부진(8.6%) 등 순이었다.

또 비제조업 기업 역시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28.0%)이었고, 인력난·인건비 상승(20.3%), 경쟁심화(11.6%), 불확실한 경제상황(11.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540개(제조업 264개·비제조업 276개) 업체들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환율, 약달러에 1350원선...8개월만에 최저

30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선으로 하락했다. 약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증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7.4원 내린 1350.0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11일(1349.5원) 이후

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361.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장가를 곁점으로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장 중 한때 1347.1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다음 달 8일 중

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됐으나 장 중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방향을 전환했다.

반기 말 수출업체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17% 내린 97.060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이달부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821개 회원사에 안전관리 가이드북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7월부터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82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배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2년째 참여 중인 광주경총은 지난해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현장 밀착형 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경총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 내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다진다. 광주경총은 한국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배포해 도급인(원청)과 중간 수급인·수급인(하청)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내용 등을 알릴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며 “회원사들이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겜3’ 흑평에 관련주 급락...이정재 대주주 기업 신저가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3(오징어게임3)이 일각의 흑평 속에 지난 30일 관련주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아티스트스튜디오(-22.84%), 아티스트컴퍼니(-19.77%)가 동반 급락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장중 20.92%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들 종목은 해당 시리즈 주연을 맡은 이정재 배우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 작품 영상 특수효과를 맡은 위지웍스튜디오

(-5.14%), 텍스터(-7.11%)와, 오징어게임3 제작사인 싸이퍼픽처스에 투자한 쇼박스(-7.27%)도 크게 내렸다.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의 3번째 시즌인 오징어게임3는 지난 27일 오후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공개 하루 만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미국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데 반해 시청자 점수는 51%로 저조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착수

9.6ha 단지 구축·재배기술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몽골 맞춤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몽골의 식량 자립 및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서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 채소 보급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몽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으로 인해 전체 채소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식량안보법 제36호’를 승인하고, 향후 5년간 270ha 규모의 온실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는 이같은 몽골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발맞춰,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시범 조성에 나섰다. 2024~2028년까지 60억원 가량을 투입해 연중 채소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농업단지 9.6ha를 구축하고, 재배 기술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 스마트농업단지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온실, 채소 생산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노지 시범포 0.5ha 등이 설치되며, 이같은 시설을 통해 채소 생산 뿐만 아니라 농업인·공무원·학생 등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은 협력 국가의 현지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몽골 기후에 맞는 스마트농업 모델을 발굴하고, 몽골의 식량주권 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71.70	(+15.76)
↓ 코스닥	781.50	(-0.06)
↓ 금리 (국고채 399년)	2.452	(-0.001)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52.60	(-4.80)